

한화 김승연 회장 인도네시아로

경제조정장관 만나 투자협조 요청 ... 리조트 · 탄광 지원 약속

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과 만나 한화그룹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6월29일 발표했다.



김승연 회장은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개발과 생명보험사업 진출에 관심이 있으며, 태양광과 바이오산업 등 주력 분야에서도 현지시장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.

김승연 회장은 “인도네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플러스 성장했고 2010년 주가지수 상승률이 46%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는 국가”라며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의욕을 밝혔다.

한화는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지역의 난또이 유연탄 광산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추가로 현지 유연탄 광산에 투

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.

하따 라자사 장관은 자카르타 인근 2000ha의 룬복리조트에 투자하고 칼리만탄과 남부 수마트라 지역의 탄광 개발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진출할 것을 권유하면서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.

김승연 회장은 6월17일부터 20여일간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캄보디아, 미얀마 등 동남아 5개국을 돌며 글로벌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6/29>